

그날 이후를 사는 사람들... '삼색 오월' 펼쳐다

5·18 46주기 '오월 레퍼토리' 공연 주목

신명 '언젠가 봄날에'·토박이 '18번 방의 형' 푸른연극마을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원한다'도



놀이매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5·18 46주기를 맞아 '오월 레퍼토리'라는 점 외에 형식, 시선이 다른 세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다. 이들은 공동체의 기억과 치유를 이야기하고, 감옥 안 청년들의 투쟁을 복원하며, 계엄군 내부의 균열과 양심을 응시한다. 1980년 5월 광주를 과거의 사건으로 소비하지 않고, 오늘날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억으로 끌어오는 것. 먼저 놀이매 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는 오는 22일과 23일 광산문화예술회관, 29일과 30일 북구문화센터에서 선보인다. 지역 대

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작인 이번 작품은 지난 2010년 초연 이후 16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300회 이상 공연된 놀이매 신명의 대표 오월 레퍼토리다.

작품은 1980년 5월 행방불명된 아들을 기다리는 늙은 무당 박조금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46년이 지나지만 역울한 죽음으로 저승에 가지 못한 시민군 호석과 여고생 정옥, 백구두 그리고 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려는 저승사자와 까막까치들이 등장하며 극은 현실과 저승, 기억과 현재를 넘나든다. 단순히 오월의 비극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용기와 상처,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문제를 공동체적 정서 속에서 풀어낸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다시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의미를 질문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오월의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한다.

놀이매 신명은 창단 이후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마당극 형식으로 꾸준히 무대화해온 광주 대표 민중예술단체인 만큼, 이번 작품 역시 전통 연화와 음악,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오월의 기억을 무대 위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작은 연출 남기성, 드라마머그 김소연, 안무 송윤경, 음악 김현무, 의상 박현주, 무대 황지선 등이 참여한다. 배우 지정남과 정찬일, 문창주, 김호준, 최해민, 강근희, 백민, 김혜선, 김선민, 유예린이 출연하며 김중일, 김단비, 김하린, 최민석 등이 악사로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극단 토박이의 특별기획 공연 '18번 방의 형'은 오는 22일과 23일 민들레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작품은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40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였던 박관현과 신영일, 이 두 열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극단 토박이가 이어오고 있는 '오월 휴먼시리즈' 두 번째 작품인 이번 공연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인물들을 다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5·18 당시 투사 회보를 필경했던 청년의 삶을 다룬 '광천동 청년, 용준씨'에 이어 또 다른 오월의 인간 군상을 무대에 올리는 셈이다. '18번 방의 형'은 1980년 5월 이후 군부정권이 은혜하려 했던 광주민중항쟁의 진실과 정지범, 재소자들에게 가해진 인권유린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나선 두 청년의 시간을 따라간다. 극 중 감옥은 단순한 수감의 장소가 아니라 시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질문하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관객이 교도소 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진행자들과 함께 수감 과정과 감옥의 분위기를 경험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과연 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군부독재 아래에서 광주의 진실을 외쳤던 청년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오늘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되묻는 무대로, 좌와 척, 그리고 정치범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극작·연출은 박정운, 음악은 박수연, 무대는 류

상근, 임홍수 등이 각각 맡는다. 무대에는 임해정, 박정운, 김정훈, 고영욱, 정진주, 이종경이 올라 열연을 펼친다.

이외에 푸른연극마을의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원한다'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씨어터연비람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주인공은 1980년 5월 당시 스톨세살의 공수부대원이었던 장인표 상사다. 장상사가 상부의 발포 명령과 폭력적 진압 지시에 따르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45년이 지난 뒤 공적을 청원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5·18을 다룬 기존 작품들이 시민군과 피해자 중심의 서사를 조명해왔다면, 이번 공연은 계엄군 내부 인물의 시선에서 오월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작품은 폭력의 명령 체계 안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국가폭력 속에서 인간의 양심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선악 구도로 인물을 나누기보다, 군 조직 속에서 갈등하고 흔들렸던 한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여기에 푸른연극마을 특유의 위트와 풍자가 더해지며 무거운 역사적 소재를 보다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1980년 5월을 살아낸 또 다른 개인의 기억을 통해 국가폭력의 구조와 인간의 윤리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공연은 채희운 작가(전 광주여대 교수)의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이당금 예술이벤트그라운드 대표가 재구성하고 연출을 맡았으며, 배우 오성완, 김대영, 민찬욱이 출연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극단 토박이의 오월 휴먼시리즈 '18번 방의 형'

푸른연극마을의 '장인표 상사 공적을 청원한다'

모내기부터 논매기까지... 농요로 듣는 선조의 삶

남도국악원 공연 16일 진악당서...농경 공동체 정서 조명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삶의 노래-농요'를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사라져 가는 우리 토속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무대에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식(食)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 '농사'를 지을 때 불렸던 각 지역의 소리를 들려준다.



국립남도국악원 공연 16일 진악당서...농경 공동체 정서 조명

공연의 포문은 고성농요보존회의 '고성농요'가 연다. '고성농요'는 조상들이 농사일을 하며 불렀던 노동요로, 소박하면서도 구성진 가락과 호쾌한 후렴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물레소리를 시작으로 보리타작소리,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청정이소리, 대동놀이까지 농경의 전 과정을 노래로 풀어낸다.

이어 사단법인 향두계놀이 보존회의 '향두계놀이'가 펼쳐진다. 평안남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민속놀이인 '향두계놀이'는 놀이 형식으로 농사 과정이 담긴 작품으로, 평안도 특유의 생활문화와 정서를 잘 담아내 2009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공연은 제1장 씨앗 고르기, 제2장 씨앗 뿌리기, 제3장 모내기, 제4장 감매기, 제5장 향두계놀이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농경 공동체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마지막 무대는 남도들노래보존회의 '남도들노래'가 장식한다. '남도들노래'는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일대에서 전승돼온 대표적인 농요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공연에서는 모뜨는 소리와 잦은 모뜨는 소리, 모심는 소리, 잦은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등 순으로 선보이며 남도 농요 특유의 흥과 공동체적 정서를 무대 위에 펼쳐낸다. 공연은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

미술그룹 '한울회' 19회 정기회원전

15일까지 광주 진한미술관서 열려

미술그룹 '한울회' (회장 양원철)의 회원전이 열린다. 전시는 열아홉번째 순서로 지난 7일 개막, 오는 15일까지 광주 동구 중앙로 소재 진한미술관에서 진행된다. 출품작은 6명 회원의 20점.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분주한 일상 속 틈틈이 창작 여정을 소화해온 회원들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한울회는 2009년 대동갤러리에서 창립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씩 정기 회원전을 열어왔다. 지난해 6월 열린 제18회 정기 회원전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본관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양원철 회장은 "지나해까지 회원 25명으로 운영됐지만 많은 분들이 사정으로 인해 이탈했고, 나머지 회원들이 원년 멤버들인데도 모두 서약하여서 조직을 재편하고 맞는 첫번째 전시"라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이남,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서 특별 기획전

광주시 양림동을 거점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강원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서 특별 기획전을 갖는다.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은 부설 어린이미술관의 전시 공간 개편을 기념해 기획된 '교과서 속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시간여행'전을 지난 5일 개막, 오는 2027년 2월 9일까지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교과서 속 현대미술 작가들과의 시간여행'전 내년 2월까지 '크로스오버 쇠라'·'조춘도'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기법을 통해 확장된 예술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미술가들의 다변적인 노력과 상상력 속에서 일상의 작은 여유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이이남 작가는 '동서양 만남으로의 시간여행'이라는 테마의 단독 주인공으로 참여해 전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작가는 고전 회화와 동서양의 명화를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융합의 미학을 선사한다. 정적인 캔버스에 갇혀 있던 고전 작품들은 이 작가의 손을 거쳐 살아 움직이는 빛과 영상으로 재탄생한다.

쇠라의 '그랑저트 섬의 일요일의 오후'와 '아나에르에서의 물놀이'를 재해석한 작품인 것처럼 설정, 캐릭터의 풍만함과 팝적인 요소들을 이용해 원작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디지털로 극대화시킨 '크로스오버 쇠라'를 비롯해 잠재 정신이 인왕산을 바라보며 화폭에 담은 고전회화에 디지털 기술을 더해 재해석한 작품이자 정신이 바라보던 인왕산의 절경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인왕산'도 선보인다.

제색도-사계, 동양의 전형적인 풍경에 환상을 담은 가운데 비와 눈이 내리는 기상현상을 연출해 동양적 정서를 담아 디지털 회화로 제작하고자 한 '말항아리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또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거장 겸재 정선과 근대 회화의 전환을 이끈 폴 세잔의 풍경 회화를 하나의 화면 위에 중첩시킨 영상인 '겸재정선과 세잔', 조선 후기의 대표화가인 김홍도의 목축도를 디지털로 재해석한 '김홍도-목축도', 조선 후기 진경산수의 정점이 평가되는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한 '신금강전도'도 출품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조춘도-사계'